

나주대학

여자야구단

스포츠 포커스

치고... 던지고... 달리고...

못 말리는 男 다른 열정

화요일인 지난 25일 나주체육공원. 하나, 둘, 셋, 네 험한 구령 소리에 맞춰 야구선수 13명이 운동장을 들고 있다.

몸 풀기가 끝나자 곧바로 타격연습에 들어간다.

'강' 알루미늄 배트에 부딪히는 파열음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지만 공은 투수 앞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세가 구부정하잖아, 다리에 힘을 더 주란 말야!"

감독의 호통이 매섭다.

던지거나 치는 모습이 다소 엉성해 보이지만 제법 틀을 갖춘 야구팀이다.

잠시 휴식시간.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 모습을 보니 모두 여자다.

여자 야구단? 그렇다.

바로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창단된 나주대 여자야구단이다.

오는 5월 14일 정식 창단식을 가질 예정인 나주대 여자야구단은 지난 1월 13명의 선수들이 모여 결성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그냥 야구 좋아' 모여든 열혈 야구광들이다.

그러나 보니 선수들의 구성도 다양하다 못해 특이하다.

52세 주부에서부터 39세 직장인, 20살 대학 새내기까지 연령층도 천차만별이다.

경력은 더욱 별나다.

태권도 5단 김예진(27·내야수), 필드하키 선수 김수미(22·외야수), 사전작가 김여름(23·투수), 농구선수 이유영(26·투수·주장), 경호원 출신 이민정(24·투수), 주부 박형옥(52·내야수)씨 등.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소유한 이들에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야구를 좋

선수단, 20세 새내기부터 52세 주부까지 '천차 만별'

올 전국 춘계대회 우승..."조만간 세계제패 기대하세요"

아하고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

야구 입문기도 독특하다.
주장인 이유영씨와 투수 이민정씨는 자매

사이다.
인천의 딸만 빚인 딸 부잣집에서 셋째와 막내로 태어난 이들은 언니 유영씨가 신문에 난 여자 야구단 창단 기사를 보고 민정씨에게 입단을 권유했다. 결국 둘 다 야구에 입

문했다.

초기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지만 이제는 열성팬이 됐다고 한다.

둘째 언니는 이종격투기 선수란다.

또 팀에서 가장 맨안나인 주부 박형옥씨의 야구 입문기도 유별나다.

완도가 고향인 박씨는 지난 82년 국내 프로야구 창단부터 열렬한 해태 타이거즈의 팬이었다. 우연히 85년 부산으로 시집을 가게 된 박씨는 뜻데없이 남편과 선의의 응원 경쟁을 하며 프로야구에 빠져들었다.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구요. 하지만 여자야구에선 아직 훈련이 없다. 팀내 투수이자 우타자인 이민정 선수의 목표는 그래서 첫 훈련이다.

이들의 희망은 이처럼 모두 당차지만 야구를 제대로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게 이들을 힘들게 한다.

나주대 야구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후 1~5시까지 하루 4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높은 타격

서 야구팀을 창단한다는 소식에 무조건 짐을 꺼렸다.

"당시 머릿속엔 그 곳에 가면 매일 야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창성했지요. 열심히 해서 여자팀 하나 창단할래요"

이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모여 팀을 이루다 보니 야구에 대한 열정은 넘쳐나지만 실력은 아직까지 '글쎄요'

그래도 특유의 패기로 지난 3월 국내 여자 야구 사상 첫 공식 개최된 제1회 2006년 전국 춘계 여자야구 대회에서 6개팀 중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팀 에이스 이유영은 최고 구속 100km의 '강속구'를 뿌려대고 김여름도 직구와 슬라이더가 일품이라는 게 감독의 주장이다.

여자 야구지만 운동장의 크기와 일반률은 남자야구와 모두 같다. 그러나 보니 국내 여자야구에선 아직 훈련이 없다. 팀내 투수이자 우타자인 이민정 선수의 목표는 그래서 첫 훈련이다.

여자 야구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후 1~5시까지 하루 4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도높은 타격



지난 1월 창단한 나주대 야구단의 이경훈 감독을 비롯, 김용신 코치 및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경훈(감독), 박정희(내야수), 이유영(투수), 김여름(투수), 정이슬(외야수), 박형옥(내야수), 이민정(투수), 조혜미(내야수), 이오영(포수), 김예진(내야수), 김용신(코치).

/직원 기자 jwvi@kwangju.co.kr

● 한국 여자야구단 어떻게 커왔나

한국 여자 야구의 역사는 짧다.

한국 여자야구는 지난 2004년 3월 '비밀리에'가 창단되면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여자 사회인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안향미씨가 감독 겸 선수로 합류해 팀을 갖췄다.

같은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제4회 세계여자야구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했으나 흥

총전 6대 16, 일본전 0대 53, 캐나다전 0대 27 등 처참한 스코어로 무너졌다.

이를 계기로 '나인박스', '부산 빙', 휴리스, 올인, 대구 로얄 페밀리, 광주 소영 야구단 등 모두 11개 여자야구팀이 태어났다.

2005년 4월에는 '대한민국 여자야구협회'가 정식으로 발족했고 1월 나주대학이 전국 대학 사상 처음으로 여자야구단을 창선했다.

현재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 지방협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부산에서 제1회 춘계전국 여자야구대회가 개최됐고 오는 5월에는 화순에서 협회장기 전국 여자야구대회도 계획돼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본사 시판부(062)222-8111

OPEN 예정점

담양 담양점 5월 1일 open 예정
순천 금당점 5월 10일 open 예정
순천 남내점 5월 10일 open 예정

국내산 최고급 생 삼겹살 전문

1인분 200g 정량

3,800

(주) 사랑방프랜차이즈

062-265-8900

www.sangsanggals.com

광주 북구 오치동 933-11 www.sarangbang3800.com

사랑방 대 주점	사랑방 하 남 점	사랑방 오 치 점	사랑방 일곡2호점	사랑방 삼 각 점	사랑방 연 재 점	사랑방 두 암 점	사랑방 송정시경점	사랑방 미라보점
복구 문정동 성당 옆 대우아파트 앞 대표 서 민 쪽	광산구 하남동 후문입구 빌고마을제육센터 앞 대표 이숙	복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대마터 앞 대표 이종우	복구 일곡동 일곡지구 대마터 앞 대표 김성록	복구 삼각동 대우스파렌드1층 대표 경관	연제동 코끼리마리 사거리 앞 대표 안대환	동일동 구민회시설장 클럽 LG증권 3층 대표 김미희	광신 도심동 송정 5월시장 대표 강영원	복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대문 남경환

사랑방 대 드림점	사랑방 문 흥 점	사랑방 일 폭 점	사랑방 경신여고점	사랑방 손 카네	사랑방 현 대 점	사랑방 융 두 점	사랑방 일 주 점	사랑방 전 대 점
복구 문정동 성당 옆 대우아파트 앞 대표 김경근	복구 문정동 문후동 입구 세티코아파트 앞 대표 박정근	복구 문정동 일 폭점 대표 박정숙	복구 문정동 경신여고점 대표 김경숙	복구 문동점 대마터 앞 대표 김경순	복구 융동 현대백화점 앞 대표 김대용	복구 융동 일 평택 대마터 앞 대표 윤영숙	복구 일주동 일 평택 대마터 앞 대표 윤영숙	서구 쌍정동 미라보아파트 대문 이한규

사랑방 버 드림점	사랑방 쌍 흔 점	사랑방 일 평 점	사랑방 마 재 점	사랑방 농 성 점	사랑방 한한(농성)점	사랑방 운 남 점	사랑방 화 경 점	사랑방 삼 무 점
서구 치평동 6.19공원 우미아파트 뒷편 대표 김호자	복구 문정동 문후동 입구 세티코아파트 앞 대표 박정근	복구 문정동 일 평점 대표 박정숙	광주 광산구 우미양정 우미원빌딩 대표 김은현	광주 광산구 부평동 교원공제회 옆 대표 김순남	광주 광산구 한미백화점 앞 대표 김한숙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점 대표 김경숙	서구 치평동 미라보아파트 대문 이한규	서구 쌍정동 미라보아파트 대문 대표 문금환

사랑방 신 가점	사랑방 철 단 점	사랑방 송 암 점	사랑방 비 아 점	사랑방 국 락 점	사랑방 산 수 점	사랑방 구 시청점	사랑방 총 경 점	사랑방 대 인 점
광산구 철원동 산자구구역 대우아파트 대표 김경근	철원 승덕고 시거리 철원동 2층 대표 박학례	도산동 펑타세이팅 2층 대표 김희경	광주 광산구 청양동 빌마트 옆 대표 김경아	광주 광산구 동원동 바이오반서 대표 유영숙	광주 광산구 운남동 산수모터 앞 대표 유순필	동구 광진동 구시청 골목 대표 조명남	동구 광진동 2기 대회장 골목 대표 최경근	대인동 흑포수목원 대문 대표 김성호

사랑방 봄 신 점	사랑방 주 월 점	사랑방 옥 과 점	사랑방 화 순 점	사랑방 나 주 점	사랑방 영 광 점
남구 풍수동 풍수동은행 대우아파트 앞 대표 위정아	남구 주원동 435-18 대표 김명남	죽전군 옥동 옥동수족관 옆 대표 김경화	화순군 화순읍 6차 상가2층 대표 김미영	죽전군 주원동 주원점 대표 김재길	영광군 영광읍 주민센터 옆 대표 김정진

사랑방 무 드림점	사랑방 허 님 점	사랑방 비 파 점	사랑방 보 건 점	사랑방 부 안 점		
남구 풍수동 풍수동은행 대우아파트 앞 대표 박영실	법원 위 쟁점 대구구아파트 입구 대표 박영실	광주 광진동 비파아파트 앞 대표 김명희	광주 광진동 보건소 사거리 보부수협 앞 대표 김정진	광주 광진동 풍수동은행 대우아파트 앞 대표 김금록	전주시 서원동 자유시장 대표 신운미	전주시 서원동 대표 신운미